

'40대 언니들'의 영역 확장

문소리 '새 자매'서 보편적 삶에 질문
 염정아 감성멜로·김윤진 스틸러 도전
 엄지원 '방법:재차의'·이정현 범죄물
 라미란은 코믹물 '시인 덕희' 주인공



문소리·염정아·김윤진·이정현·라미란·엄지원(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) 등 40대 여성배우들이 다양한 장르를 무대 삼아 스크린에 나서며 영역을 넓힌다. 스포츠동아DB

'뒤틀은 더 다지고, 새로운 영역은 새로운
 움으로 넓힌다.'
 올해 스크린에 나서는 40대 여성배우
 들의 출사표도 이만한 표현도 없을 듯하
 다. 문소리(47)·염정아(49)·김윤진(48)·
 엄지원(44)·라미란(46)·이정현(41) 등이
 그 주역이다. 드라마와 로맨스 등 특유의
 감성이 더욱 중요한 장르는 물론 스틸러
 와 코미디 등 남성배우들이 장악하다시
 피 한 무대를 통해서도 온전한 주역으로
 관객을 만난다. 최근 2~3년 사이 여성 중
 심 캐릭터 영화가 늘어나는 추세에 이들
 의 등장으로 관련 이야기가 더욱 풍성해
 질 전망이다.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
 증(코로나19) 확산 여파로 신규 개봉작이
 크게 줄어들며 영화계가 깊이 침체한 상
 황이어서 이들의 활약에 커는 충무로 안
 팍의 기대감도 크다.

●뒤틀은 다지다
 문소리는 어린시절 폭력의 상처를 씻
 어내는 세 자매의 이야기를 그린 27일 개
 봉작 '새 자매'로 드라마의 묘미를 안긴다.
 염정아는 뮤지컬 영화 '인생은 아름다워'
 에서 첫사랑을 찾아 나선다. 김윤진은 살
 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사업가의 무

죄를 입증하려는 변호사로 '자백'의 이야
 기를 이끈다.
 문소리는 1999년 데뷔작 '박하사탕' 이
 후 흥행작 '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'을 비
 롯해 '오아시스' '가족의 탄생' '관능의 법
 칩' 등 보편적인 삶의 스토리에서 장기를
 발휘해왔다. '새 자매'에서는 아픔을 안고
 살아가는 딸이자 엄마이면서 아내인 여

성의 삶을 이야기한다.
 염정아는 최근작 '미션' '완벽한 타
 인' 등으로 여전히 세련된 이미지를 빛내
 며 로맨스와 멜로의 감성을 잃지 않고 있
 다. 과거 첫사랑을 만나기 위해 남편과 여
 행에 나서는 '인생은 아름다워'에서는 노
 래 실력까지 과시하며 또 다른 모습으로
 관객을 만난다.

'이웃사람' '세븐데이즈' '6월의 일기'
 등 한국 스틸러영화의 여성 캐릭터로서
 독보적인 위상을 다져온 김윤진의 새 무
 대 역시 같은 장르다. 소지섭과 함께 '자
 백'의 주연으로 새로운 스틸러의 매력을
 풀어낼 기세다.

●새 영역으로 나아간다
 사실 스틸러 장르는 그동안 남성배우
 들의 '전유무대'처럼 인식되어 왔다. 실제
 로 영화진흥위원회가 2009년부터 2018년
 까지 매년 흥행 50위권 작품을 대상으로
 조사해 내놓은 '한국영화 성평등 정책 수
 립을 위한 연구' 보고서는 "2017년 이후
 남성 캐릭터 중심의 스틸러와 범죄액션
 물이 압도적이었다"고 밝혔다.

하지만 올해는 양상이 달라질 전망이
 다. 엄지원이 스틸러와 공포 장르를 버무
 리는 '방법:재차의', 이정현이 문정희·진
 서연 등과 함께 범죄물 '리미트'를 각각
 이끈다. 두 사람은 이미 다양한 장르의 무
 대에서 각기 다른 색깔의 다채로움을 과
 시해온 배우들이다.
 여기에 최근 드라마 '경이로운 소문'
 으로 새롭게 부상한 염혜란이 일상의 비
 밀에 얽힌 이야기 '빛과 철'의 오묘한 주
 연으로 2월 극장가를 찾는다. 코로나
 19가 확산하기 직전인 지난해 2월 개봉
 했지만 감염병에 기세가 꺾인 '정직한
 후보'의 아쉬움을 뒤로 한 라미란도 새
 롭게 코믹물 '시인 덕희'로 다시 한번 흥
 행에 도전한다.

문여수 기자 tadada@donga.com

'손예진 남친' 현빈의 워크홀릭...연애는 잠시만!

영화 '교섭' 이어 '공조2' 크랭크인
 '연애는 잠시, 이제는 일로.'
 톱스타 현빈(39)이 동갑내기 손예진과
 사랑에 빠진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은
 가운데 올해 무대로 다시 돌아온다. 두 편
 의 영화로 새롭게 관객을 만나며 본인인
 연기에 전념할 계획이다.
 현빈은 최근 영화 '교섭'의 촬영을 마
 쳤다. 영화는 중동지역에서 납치된 한국
 인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 나선 외교관과
 국정원 요원의 이야기. 외교관 역할의
 황정민과 호흡을 맞춘 현빈은 국정원 요
 원 역으로, 지난해 말 신종 코로나바이
 러스 감염증(코로나19)의 세계적 대유

행 속에서 위험을 감수
 하고 요르단 로케를 진
 행하는 등 국내외 촬영
 을 끝냈다.
 영화는 현재 후반작
 업 중이다. 올해 개봉
 을 목표로 한다. 이에
 따라 현빈은 자신의 영화를 선보이기 위
 한 준비에 나서게 된다.
 동시에 현빈은 2017년 주연해 780만
 여 관객으로 흥행한 영화 '공조'의 속편
 '공조2:인터내셔널'에 다시 한번 나선
 다. 2월 촬영을 시작한다. 자신과 전편
 의 흥행을 이끈 유혜진, 임윤아와 함께
 다니엘 헤니, 진선규 등과도 새로 손잡

는다. 남북한 형사와 미국 FBI 요원 등
 이 벌이는 이야기 속에서 현빈은 이번
 도 북한 형사 역으로 호쾌한 액션 연기
 를 펼친다.
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외 언
 론과 팬들의 시선도 집중됐다. 특히 일
 본 언론들은 현빈이 지난해 주연작 tv
 N 드라마 '사랑의 불시착'으로 최근 A
 PAN 스타 어워즈 대상을 받은 뒤 극중
 캐릭터 이름을 떠올리며 "정혁이한테
 는 최고의 파트너인 윤세리, (손)예진씨
 에게 고맙다"고 말한 수상 소감과 함께
 그의 '공조2:인터내셔널' 출연 소식을
 잇달아 전하며 관심을 드러냈다.

문여수 기자

'아이콘 메인래퍼' 바비 화려한 솔로 '미약 의혹' 비아이는 조기복귀 논란

그들 아이콘의 전·현직 멤버 바비와 비
 아이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.
 '사랑을 했다', '취향저격', '죽겠다' 등 아
 이콘의 대표곡을 공동으로 작사·작곡해
 히트시키는 등 그룹의 주축이었던 두 사람
 이 같은 시기 활동을 시작하면서 팬들의
 반응이 극단으로 나뉘고 있다.
 아이콘의 메인 래퍼 바비가 3년 4개월
 만에 솔로로 돌아왔다. 25일 정규 2집 '럭
 키 맨'을 발표하고 자신의 스펙트럼을 마
 음껏 펼쳐 놓았다. 팬들은 오랜 만에 만나
 는 그의 모습에 반색하고 있다. 그동안 꾸
 준히 자작곡을 선보여온 그는 이번 앨범에
 타이틀곡 '야 유나'(U MAD)를 비롯해 모
 두 17곡을 담았다. 역시 작사·작곡·프로
 듀싱 모두 '셀프'로 했다.
 그는 이날 오후 온라인 기자회견에서
 "슬픔과 기쁨 등 많은 감정이 묻어 있다.
 청년들이 살면서 느낄 수 있는 희로애락을
 표현하고자 했다"며 "20대인 지금의 제
 가 많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 자체가 '럭키'
 하다"고 말했다.
 솔로 활동을 통해 "100% 노력하겠다"
 는 그는 "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"면
 서 "앨범 안에 많은 감정이 있다. 대중이
 슬플 때나 기쁠 때 언제나 노래로 영향력
 을 끼치고 싶다"고 바람을 드러냈다.
 반면 마약 구매 의혹으로 팀은 물론 소
 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서도 나온 비아
 이는 '조기 복귀' 논란에 휩싸였다. 최근
 에픽하이의 새 앨범 수록곡 '수상소감'의
 피쳐링과 작사·작곡에 참여하며 캠페
 다. 하지만 2019년 지인을 통해 대마초 등
 마약을 구매한 의혹으로 현재 재판을 받
 는 상태에서 활동을 재개했다는 비판의
 목소리가 나온다. 여기에 지난해 말 고향
 정·조인성 등이 소속된 아이오케이컴퍼
 니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비아가 최근
 신인그룹을 론칭한다고 밝히면서 프로듀
 서로까지 나서는 게 아니냐는 등 굵직한
 소식을 받고 있다.

이정연 기자 annjoy@donga.com

반려동물 1500만 시대...고정이 된 '동물 예능'

전국 4기구 중 1기구가 반려동물을 키우
 는 것으로 나타났다. 농림축산식품부가 지
 난해 발표한 '동물보호 국민인식 조사'에 따
 르면 10월 기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
 591만 가구로, 해마다 가파르게 늘어나고
 있다. 전국 20~64세(5000명)를 대상으로
 2019년 10월31일부터 8일간 실시한 이번 조
 사 결과가 보여주듯 사람과 더욱더 가까워
 진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방송가의 시선도
 달라지고 있다. 인간과 동물의 공존에 대한
 고민을 담아 시청자 호평을 이끌어내는 예
 능프로그램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.
 현재 방영 중인 KBS 2TV '개는 훌륭하
 다'와 '펫비타민' 등이 선두에 섰다. '개는 훌
 롭하다'는 동물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
 대표가 연예계 대표 동물애호가로 꼽히는
 이경규와 함께 사연자들의 반려동물을 살펴

보고 문제를 해결한다. 동물 행동교정과 함
 계 반려인의 인식 개선을 목표로 삼고 있다.
 작년 10월 방송을 시작한 '펫비타민'은
 인간과 반려동물의 건강을 함께 들여다보
 는 프로그램이다. 연출자 전수영 PD는
 25일 "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
 로나19) 확산 여파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
 아지고,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
 지는 상황을 반영한 기획"이라며 "동물과
 인간의 행복한 공존에 초점을 맞춘 덕분에
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"고 밝혔다. 호평에
 힘입어 28일 특집을 끝으로 한 달여 재
 정비 기간을 거쳐 시즌2를 내놓는다. 제작진
 은 시청자가 참여하는 다양한 코너를 고민
 중이다.
 14일 방송을 마무리한 SBS 파일럿 '어
 짜다 마주친 그 개'(어찌개)와 2월11일부

'개는 훌륭하다' '펫비타민' 선두주자
 펫팸족 신조어 양산 등 방송 트렌드로
 터 선보이는 KBS 2TV '류수영의 동물티
 비'는 반려동물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를
 다룬다. '어찌개'는 유기견들의 임시보호
 과정을, '동물티비'는 생과 사의 기로에 놓
 인 동물의 이야기를 담는다. 연기자 조운
 희와 가수 티파니, 류수영 등이 프로그램
 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.
 관련 프로그램은 '펫팸족(반려동물을 가
 족으로 여기는 사람들)이란 신조어가 등장
 할 만큼 동물에 대해 사뭇 달라진 일반의 인
 식이 반영된 결과다. 전수영 PD는 "최근 동
 물예능프로그램이 동물을 소개하거나 행동
 교정을 다루는 포맷을 거쳐 더욱 다양하고
 깊이 있는 트렌드를 담은 추세"라며 "반려
 동물 인구 1500만명에 발맞춘 긍정적
 인 흐름이다"고 진단했다.

유지혜 기자 yjh0304@donga.com

연예뉴스 HOT 3

이혁재, 지인 돈 안 갚아 사기혐의로 피소



이혁재

방송인 이혁재(47)가 지인에게 빌린 수
 천만원의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
 됐다. 이혁재의 지인 A씨는 25일 이혁
 재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. 이
 날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고소장을 낸
 A씨는 "이혁재가 2000만원 상당의 돈
 을 사업 자금 등 명목으로 빌린 뒤 제때 갚지 못했다"고
 주장했다. 경찰은 고소인 A씨와 이혁재를 불러 사실관
 계를 조사할 방침이다. 이혁재는 2017년 12월 전 소속
 사로부터 수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민사소송을 당해
 패소한 바 있다.

래퍼 아이언 숨져...경찰 사망 경위 조사



아이언

래퍼 아이언(정현철·28)이 25일 세상
 을 떠났다. 아이언이 이날 오전 10시
 25분께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
 서 피를 흘리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. 아
 파트 경비원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됐
 지만 숨졌다. 경찰은 아이언의 정확한
 사망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. 아이언은 2014년
 엠넷 '쇼미더머니3'를 통해 데뷔했다. 지난해 자신에게
 서 음악을 배우던 10대 소년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바
 있다. 또 2015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
 월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.

김승우, 웹드라마 '연애시발.(짐)' 연출



김승우

배우 김승우가 처음으로 웹드라마를 연
 출한다. 김승우는 웹드라마 '연애시발.
 (짐)'을 연출한다. 휴대폰을 분실한 취
 업준비생이 벌이는 좌충우돌 헤프닝을
 그리는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이다. 김
 승우는 대본까지 직접 쓰며 이야기를
 펼친다. 김승우는 지난해 이태란과 함께 직접 주연한 영
 화 '포가튼 러브'를 연출해 장편영화 감독으로도 데뷔
 했다. 김승우는 조만간 '연애시발.(짐)'의 촬영을 시작하
 며 본격적인 연출 작업에 나선다.

영화 '미나리' 주연 윤여정 2개 트로피 추가



김승우

영화 '미나리'의 윤여정이 2개의 트로
 피를 추가했다. 윤여정은 24일(이하 한
 국시간) 미국 뉴멕시코 비평가협회가
 '미나리'의 모든 배우에게 주는 앙상블
 상에 이어 25일 캔자스시티 비평가협
 회의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다. 이로써
 윤여정은 '미나리'로 미국에서 모두 16개에 달하는 배우
 상을 받았다. 앞서 LA, 보스턴, 노스캐롤라이나 등 비평
 가협회와 미국 여성 영화기자협회상, 선셋 필름 서클 어
 워즈 등을 받았다. '미나리'는 한국계 정이삭 감독이 연
 출해 1980년대 미국 한인 이민가정의 이야기를 그린 영
 화로, 윤여정은 극중 외할머니 역을 연기했다.

독립영화 온라인 플랫폼 '인디그라운드' 출범

70편의 독립영화를 선보이는 독립·예술영화 공공 온라
 인 플랫폼이 25일 출범했다. 영화진흥위원회와 독립·예
 술영화 유통배급지원센터 인디그라운드가 운영하는 온
 라인 플랫폼 '인디그라운드'이다. 이날 서비스를 시작한
 '인디그라운드'는 독립영화 라이브러리에 구축된 70편
 의 독립영화를 31일까지 일주일 동안 온라인 상영관을
 통해 공개한다. 2월에도 관련 서비스를 이어간다. 영화
 진흥위원회는 "독립·예술영화 유통배급 방식의 다각화
 및 온·오프라인을 통합한 유기적 지원 체계 확립을 목
 표로 한다"고 밝혔다.